

# '전주사랑콜' 시스템 개선으로 편의성 높인다

### 전주시, 택시호출앱 이용자 지속 증가... 전체 점유율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집중기로

전주시가 전주형 택시호출앱의 점유율을 전체 호출건수의 절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전주사랑콜의 가입 차량이 초기 1800대에서 현재 2300여 대로 증가하며, 호출 건수도 출시 첫 주 3800여 건에서 지난해 5400여 건으로 42% 증가하는 등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경기 불황 등 택시 수요가 급감한 현실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적이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설명이다.

전주사랑콜 이용자들이 꼽은 장점은 배차가 빠르다는 것이다. 빠른 배차는 서비스 요금에 따라 호출 배정을 구분하는 기존 대형플랫폼과는 달리 동일한 서비스로 모든 차량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손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차량을 배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사랑콜에는 목적지를 지정하지 않고도 현재 내 위치로 차량을 호출할 수 있는 기존 플랫폼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특별한 기능도 있다. 이는 일부 기사들이 손님의 목적지를 보고 끌다 호출을 받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전주사랑콜의 10% 캐시백



전주시가 전주형 택시호출앱의 점유율을 전체 호출건수의 절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서비스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혜택 제공도 전주사랑콜의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용객은 앱에 전주사랑콜을 미리 등록해 편리하게 결제하고, 캐시백 혜택도 챙길 수 있다.

시는 전주사랑콜이 순조롭게 시장에 정착한 만큼, 하루 호출 건수를 오는 6월까지 1만 건, 연내 1만5000건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펼칠 계획이다. 하루 호출 건수 1만5000건은 전주시 전체 하루 호출 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는 물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과 기사 모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

가고 있다.

심규문 대중교통본부장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편의성 높여가겠다"며 "택시와 시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전주사랑콜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 음악 통해 자연 소중함 알린다

### 전주시립교향악단, 23일 환경음악회 개최

전주시립교향악단이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달하기 위한 공연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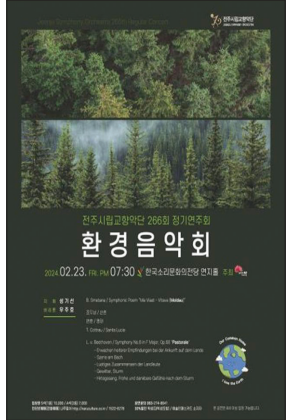
전주시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주홀에서 전주시립교향악단(예술감독 겸 지휘자 성기선)의 환경음악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전주시립교향악단의 제266회 정기연주회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스메타나의 교향시 나의 조국 중 2번 '볼다우' △조두남의 '산촌' △변훈의 '명태' △테오도르 코트리아우의 '산타투치아' △베토펜의 교향곡 6번 '전원'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 바리톤 우주호와 협연하며, 자연을 주제로 한 곡들을 연주함으로써 관객들과 함께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을 함께 나눌 계획이다.

특히 전주시립교향악단은 공연장 로비에 대형모니터를 설치해 생태 예술단체 '에코오롯' 정은혜 작가의 '플라스틱 만다라' 영상과 전주시 탄소중립 정책 캠페인 홍보 영상도 상영할 예정이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연은 관객과 함께 환경 보존



전주시립교향악단 환경음악회 포스터

을 실천하는 계기를 갖고자 마련하게 됐다"며 "전주시향이 들려주는 음악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의 입장권은 1만 원(1층)과 7000원(2층)이며, 나무컬처(www.naruculture.com, 1522-6278)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학생과 예술인패스카드 소지자에게는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여성 예비 창업자 성공 창업 돕는다

### 여성재도전사관학교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10명 공개 모집

전주시가 올해도 여성 예비 창업자를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주시 거주 여성 예비 창업자에게 종합적인 창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2024년 여성재도전사관학교 창업지원사업'의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여성재도전사관학교' 창업지원사업은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구체적인 사

업계획을 보유하거나 사업 실패 경험이 있는 여성의 재도전을 응원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우범기 전주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다.

시는 올해 생활소비재·수공예품·지역특화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전주시지역 여성 예비 창업자 10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과정 및 창업보육실 등 사업 운영은 위탁기관인 전주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맡아 진행한다.

접수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jcenter@naver.com)으로 하거나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232-235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창업 성공의 핵심이 참신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판로개척이 중요하다고 판단, 선정된 여성 예비 창업자에 대해 제품의 가격산정과 재무관리, 마케팅, 판로

개척을 위한 멘토링단을 구성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창업보육실 운영 △초기 사업계획 수립 △창업교육 및 컨설팅 △시장진입 및 마케팅 지원 과정으로 단계별 창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여성 예비 창업자 7명을 발굴해 지원했다. 참여한 여성 예비 창업자들은 이 사업을 통해 디지털과 식품, 의류 등에서 판매경로 연계 및 매출액 상승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여성창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창업이 이뤄지도록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 뗏다방 불법 부동산 특별 단속 나서

### 전주시 완산구,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와 민·관합동 실시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감나무골 서신 더샵 비발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서부신시가지 경분주택 주변에 뗏다방 등을 중심으로 한 불법중개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3일 동안 전주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등록(뗏다방) 이동식 중개행위 △무자격자 중개 알선행위 △무등록 보조원의 호객 행위 등으로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은 특별·일반공급 접수일(26.~27.) 및 계약 체결일(3.18~22)에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뗏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취

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법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 포털에 등록된 중개업소를 방문해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감나무골 서신 더샵 비발디는 서신동 40-4번지 일대에 총3개단지 28개동, 지하3층~20층 규모로 전체 공급 1,914가구 가운데 1,225가구가 일반공급 될 예정이며, 2026년 입주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 전주시 덕진구, 인기 배달 음식 마라탕·양꼬치 취급음식점 집중 점검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는 배달앱 인기 메뉴인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35개소를 대상으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배달음식 시장 규모가 증가하면서 배달 전문 음

식점에 대한 위생관리 필요성이 중요해졌다. 따라서 위생 취약 개선 사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위생상태를 들여다본다.

주요 점검내용은 작년 한해 동안 음식점에서 다수 적발된 사항인 △위생교육 미이수, △건장진단 미실시, △소

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보관, △음식에 이물 혼입, △조리실, 환풍시설 불청결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이다. 또한 마라탕·양꼬치 등 중국 음식을 취급하는 외국인 운영 업소가 지속적으로 생기면서 언어장벽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국어로 번역된 식중독 예방 수칙 등 위생 관련 중점 사항도 교육할 예정이다.

김봉정 덕진구청장은 "소규모 배달음식점 수가 늘고 시민들의 배달음식 주문이 보편화 되고있다. 따라서 배달음식점 지도점검을 시기별·업체별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문해 먹을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인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증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선화당

관풍각

내야